

지역 경제계 이끌 '광주상의 회장' 누가 될까

제24대 회장 선거 23일 공고...내달 18일 임시총회서 선출 정창선 현 회장 연임 도전에 양진석 호원 회장 출마 변수

광주지역 경제계를 이끌어갈 제24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3년간 지역 기업들의 '좌장' 역할을 해오던 정창선 회장은 정에서 차기 회장에 대한 경제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7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오는 23일 제24대 의원·특별의원 선거를 공고한 뒤 본격적인 차기 상의회장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회장 선출은 다음달 18일 열릴 제24대 임시총회에서 이뤄

질 계획으로, 임기는 21일부터 3년간이다.

광주상의 회장은 상의가 지역 기업들의 구성체로서 상공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의원·특별의원 선거는 다음달 11일 예정됐다. 일반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총 92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의원·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2일까지다.

일반의원들은 상의 회비를 납입하는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이 뽑는다. 현재 광주상의 전체 회원사는 2600여개사로, 평균적으로 400~500여 개사가 투표에 참여한다. 특별의원들은 경제단체 소속 회원들이 선출한다.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 수는 지난해 납부회비 금액에 따라 1표에서부터 50표까지 차등 부여한다. 선거권 수를 추가로 확보하려면 회비를 추가로 내면 된다.

광주상의는 의원·특별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다음날인 3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차기 광주상의 회장 후보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회장에 출마하려면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2명 이상 후보가 출마할 경우 경선을 치른다.

한편 이번 광주상의 회장 선거를 앞두고 차기 회장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창선(중흥그룹 회장) 현 회장이 사실상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양진석 호원 회장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회장은 3년 전 23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의원 사전투표에서 1위를 하는 등 '추대 후보'로 거론됐던 양진석 호원 회장이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단독 출마에 회장에 당선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33.73 (-29.52)
↑ 코스닥	979.77 (+2.03)
↑ 금리(국고채 3년)	0.986(+0.002)
↑ 환율(USD)	1107.50(+7.40)

디지털 금융상품 가입팬 꽃다발·선물 '한아름'

농협, 화훼농가 돕기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오는 3월31일까지 디지털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꽃 선물하세요-러브 플라워' 행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 마련됐다.

응모 대상은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해당 디지털 상품 7종 중 1종 이상 가입한 고객이다. 총 2021명을 추첨해 꽃 6개월 정기구독권(21명), 희망 꽃다발(2000명)을 준다.

또 농협은행 공식 소셜미디어에 오른 행사 글을 특정 문구와 함께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면, 50명을 뽑아 스타벅스 물병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전남마케팅추진단 송경경 단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어려움에 부딪힌 화훼농가를 돕고, 많은 분이 꽃으로 감사와 축하, 사랑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 관련 문의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NH스마트뱅킹과 올원뱅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 양곡 6만t 추가 공급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직후 2019년산 정부양곡 6만t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정부양곡을 37만t 범위에서 시장에 풀기로 한 데 따라 지난 달 12만t을 공급했으며 이번엔 6만t을 추가로 내놓는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3~6월에는 19만t 가량을 공급할 예정으로, 총 37만t을 풀게 된다.

지난해 긴 장마와 연이어 태풍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23만t, 예상치보다는 12만t 감소한 351만t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물량은 오늘 입찰해 24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한다. 업체 등록·입찰 등 구매 절차는 '농협 조곡구매시스템(rice.nonghyup.com)'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 80kg)은 21만9120원으로, 1년 전(19만44원)보다 15.3%(2만9076원) 올랐다.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4%(860원)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고객의 삶에 영감과 여유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을 선언한 기아가 17일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코드명 GL3)의 차명을 K8으로 확정하고 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기아 제공>

K7.....K8

'대변혁' 기아, K7 혁신 이미지 계승한 K8 공개

올해 '대변혁'을 선언한 기아가 17일 준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코드명 GL3)의 차명을 'K8'로 확정하고 디자인을 공개했다.

2009년 1세대 모델 출시로 K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K7은 '디자인 기아'의 대표 모델로, 1세대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50만대 이상 판매됐다.

K7이 가진 혁신의 이미지를 계승한 K8은 디자인과 크기, 상품성 등 모든 면에서 한단계 진보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우선 K8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아의 신규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해 디자인 요소간의 대비와 조화로운 외장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면부에는 브랜드 최초로 알루미늄 소재의 신규 엠블럼이 적용돼 기아의 새로운 세대를 여는 첫 모델임을 알리고 있다. 테두리가 없는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은 보석

같은 패턴을 따라 빛이 움직이는 모습을 구현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했다. 기아는 덧붙였다.

전장은 5015mm로, 고급 요트가 물 위를 달리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유선형의 캐릭터 라인은 바퀴 주변부 차체 볼륨과 조화를 이룬다. 또 긴 후드와 짧은 전방 오버행, 트렁크 끝까지 이어지는 2열 뒤쪽의 루프 라인 등을 통해 쿠파에서 느껴지는 역동적인 비율을 구현했다.

기아 관계자는 "후면부에 적용한 K8 로고는 기아 엠블럼과 동일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새로운 기아를 보여주는 첫 모델로서 존재감을 드러낸다"며 "새로운 차명 K8에 걸맞은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첨단 주행 보조 기술 등을 향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순천대에 2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오른쪽)은 17일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를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1990년부터 순천대에 총 4억7000만원을 기탁했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타이어 노사 "회사 정상화 최선" 다짐

단체교섭 조인식 가져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17일 광주공장에서 조인식을 갖고 '2020년 단체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대진 대표이사와 김도형 금속노조 광주전남 수석지부장 등 노사 대표와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가 단체교섭 약정서에 최종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며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교섭이 10여 년간 이어져 온 통상임금 소송 등 갈등을 노사간 대화를 통해 해소한 것은 물론,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미래 경쟁력까

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노사가 공감해 임금 동결로 뜻을 모았고, 2018년 4월 노사특별합의 이후 '3년 연속 무쟁의' 타결을 이끌어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전대진 대표이사는 "장기간 지속된 교섭에 노사 양측 모두 고생이 많았다"며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앞으로 좋은 회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단체교섭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 ▲생산/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격려금(100만원) ▲고용안정보장 협약 ▲미래비전에 관한 실천 합의 ▲통상임금 소송 해결 등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